

[ 기획 ]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제2부> 문화 향기 현장속으로
(9) 울산시 메세나 운동

中企까지 나서 창작 지원...시민 문화만족도 '쑥쑥'

울산에서 활동하는 음악 그룹 '약당(藥堂)'은 지난 3월 '통일 아리랑'을 울산문화회관 무대에 올려 큰 호응을 얻었다.

약당의 최길 대표는 "늘 하던 공연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획을 시도해 볼 수 있어 행복했다"며 "기업의 지속적인 후원은 예술단체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런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메세나 운동'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가 주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울산시의 사례는 타 지역 예술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SK에너지 등 선도 기업 솔선수범

울산은 시민들의 소득이 평균 4만불을 넘어선 부유한 도시다. 시가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문화로 눈을 돌린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 시는 '1기업 1문화 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문화 활동의 생산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수립했다.

위원회는 SK에너지(주) 등 6개 기업을 '선도 기업'으로 선정했다. 아무래도 기존 메세나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솔선수범'하며 분위기를 이끄는 게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8월 첫번째 성과물이 나왔다. 농협울산지역본부가 울산연극협회와 결연을 맺고 '태화강 대술 남파축제'에 1천만원을 지원했다.

울들어 시의 발걸음은 더 빨라졌다. 메세나 책자 발간, 기업체 방문을 통해 홍보를 강화했고 그 결과 올 3월에는 20개 단체의 자매결연식을 열었다.

울산시의 메세나 운동 관련 사업비는 모두 2억원으로 아직 넉넉한 편은 아니다. 1억원은 각종 행사 진행비와 홍보비 등으로 책정했고 1억원은 중소기업 매칭펀드 사업 자금으로 활용한다.



'창조적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가 중심이 돼 메세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문화단체와 기업간의 결연식 모습. (울산시청 제공)

1 기업 1 문화단체 지원...21개 기업 25개 단체 결연
참여업체 든든한 후원속 전시·공연 질 날로 높아져

위해서다. 시는 중소기업들이 내는 메세나 지원 금액의 규모에 따라 최저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단체에 지원해준다.

시는 지난 6일 울산메세나운동 홈페이지(http://mecenat.ulsan.go.kr)를 오픈했다. 홈페이지에는 각종 메세나 관련 자료와 함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200여곳의 자료를 등록, 기업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기업체와 단체들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결연단체들이 공동으로 공연을 진행하는 가장 메세나에술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100여개 단체의 결연이 진행되면 민간 주도로 메세나 운동을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술단체·기업 상호 신뢰로 '원인'

울산 뿐 아니라 대부분 지역의 예술 단체들은 공연이나 전시를 열 때마다 제작비를 구하느라 애를 먹는다.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작품 수준 저하, 참신한 기획물 빈약, 관객 외면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

그런 점에서 울산시의 메세나 운동은 지역 예술인들에게 단비같은 존재다. 특히 예술단체들이 개별적으로 기업체를 방문, 공식 후원을 따내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가 기업체와 예술가들이 만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군이 생긴 듯해 힘이 납니다. 무엇보다 메세나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작은 것이라도 돕겠다는 일반 개개인들의 후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게 반갑죠. 아무래도 작품의 수준이나 기획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돼 긴장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구요."

약당의 최대표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이라 결연 후 단체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기업의 마인드 전환과 함께 예술단체들의 변화도 필요하다. 일부 단체의 경우 무조건 기업체로부터 혜택을 받을 생각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자매결연을 맺은 기업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특별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업체와 끊임 없이 신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울산시청 문화예술과 김용규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기업 CEO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예술 단체들도 작품의 질을 높이고, 결연 기업체를 위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원: Land Life Love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부산도 메세나 운동 활기

부산상공회의소-부산예술과 양해 각서

울산시에 이어 부산시도 메세나 운동에 뛰어 들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메세나 활성화를 위해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예술과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시는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MOU)에서 기업과 문화예술단체 결연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시책 개발에 노력한다고 협약했다.

각 단체는 '1기업 1예술단체 자매 결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담 창구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메세나 운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메세나 운동은 기업과 문화예술단체간의 일로 민간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부산시는 지난해 민간 차원에서 결연된 부산메세나진흥원이 법인 구성에 실패하자 이번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기업·단체 문화예술단체 자매결연 현황

Table with 2 columns: 기업·단체 (Company/Organization) and 문화예술단체 (Cultural/Art Organization). Lists various companies like SK Energy and their partner organizations like Ulsan Symphony Orchestra.

■ 문화 나눔 현장, 알려주세요

문화는 나눌수록 더욱 커집니다. 소외계층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객석 기부, 예술인들의 공연 기부, 기업체의 예술단체 지원 등 아름다운 문화나눔 현장을 찾아갑니다.

광주시 의료안내 (Gwangju Medical Guide) advertisement. Features a large banner with the title and a list of medical services and hospital information. Includes contact numbers and addresses for various clinics and hospitals in Gwangju.